일상・노동・생애와 '성찰'의 힘, 대화의 공감 동력*

—〈미생〉이 던진 질문과 희망

최기숙**

1. 신자유주의의 노동 현장에서 성찰은 가능한가
2. 일상은 어떻게 성찰의 매개가 되는가
  2-1. 내적 독백: 일상을 복기하는 성찰 습관
  2-2. 일상 관찰: 정동 기호의 판독과 경험 자산화(Personal DB화)
3. 노동 현장, 성찰하는 노동자: 성찰은 어떻게 성장의 매개가 되는가
  3-1. 관계: 대화의 힘, 증폭되는 성찰 동력
  3-2. 상생: 직장 내 인정구조와 상호 의존
  3-3. 성장: [노동・현장・생애] 성찰과 지향
4. '만화'적 감성 표현과 성찰의 레토릭
  4-1. 혼성적 합성: '시공간/인물/대상/배경'의 혼성과 의미의 중첩
  4-2. 언어의 시각화: 직유적 표현의 이미지화
  4-3. 패러디: 이미지와 감각의 차용
  4-4. 중의적 암시・상징・투사
  4-5. 정보 압축과 감각 전환
  4-6. 내면의 이미지화
  4-7. 대사와 독백의 병치
5. 성찰 연습의 가능성

---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3).
이 논문은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사업단 제 53차 사회인문학 포럼 "한국학과 감성교육: '감성-능력' 함양과 한국학의 성찰적 재구성"(2016.8.17. 연세대 연희관 201호)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부교수

www.kci.go.kr

국문요약

이 논문은 윤태호 원작의 만화『미생』을 대상으로 일상과 노동 현장, 생애 전체에 '매개'되어 있는 성찰성의 감각과 실제(방법, 내용, 방향, 귀결)를 분석함으로써, 현대인으로 하여금 성찰 감각을 회복하고, 이를 일상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성찰 연습'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미생』에는 매 회마다 작중 인물의 독백과 발화를 통해 성찰적 감각과 인지, 이를 주변인과 공감하는 정황이 재현된다. 장그래의 독백은 세상과 사회, 타인과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응시'의 철학을 수행하는 유력한 방식이다. 이때 장그래가 바둑에서 훈련한 '복기'를 직장생활을 '성찰하는' 매개로 활용한 것은 그가 자신의 과거를 '실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찰 자원'으로 재위치시키는 방법이다.

『미생』의 등장인물이 인생의 지혜와 통찰, 문제 해결의 방안과 영감을 얻는 방식은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과 경험이다. 정동 기호(affective sign)의 판독을 통해 경험을 자산화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을 수정함으로써, 감각적 지식을 성찰적 매개로 위치시키게 된다.『미생』에서 성찰성을 주도하는 인물인 장그래는 검정고시 고졸 출신의 불리한 '스펙'에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성찰적 대화를 수행함으로써, 관계의 책임성, 윤리성, 진정성을 공유한다. 이는 직장생활에서 인정구조를 형성하는 동인이 되며, 동료 간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여 상생 구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 노동, 생애에 관한 개인의 성찰성이 집단과 공유될 때, 각 구성원은 상생적 성장을 하게 되며, 관계의 힘도 증폭된다.

『미생』이 성찰성을 구현하는 방식은 대사, 독백, 나레이션이라는 서사 보편의 요소 이외에, 만화라라는 장르적 특성을 활용한 수사학을 통

www.kci.go.kr

해서다. 여기에는 이미지와 대사의 혼성적 합성, 언어의 시각화, 패러디, 배경의 중의적 암시와 상징적 구현, 정보 압축과 감각전환 등의 고유한 레토릭이 포함된다.

이 논문은『미생』의 성찰성이 스토리 전개나 인물 형상화, 대사와 독백의 선별 등에 관여된 '서사적' 차원을 이미지로 재현하는 장르적 장치를 통해 구현되었음을 논증했다.

(주제어: 미생, 만화, 윤태호, 텔레비전 드라마, 성찰성, 신자유주의, 대화, 독백, 상생, 책임, 감각 전환)

- 근대는 노동을 이론적으로 예찬하였으며 모든 사회를 노동하는 사회로 변형시켰다.
(한나 아렌트,『인간의 조건』, 53쪽)
- 생존을 위해, 봉급을 받기 위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성,
즉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들의 인간적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노동하는 영혼』, 52쪽)
- 나는 그동안 회사에 가기 위해 집에 들른 걸까? (윤태호,『미생』, 9권 193쪽)

1. 신자유주의의 노동 현장에서 성찰은 가능한가

이 글은 윤태호 원작의 만화『미생』(1~9권. 위즈덤하우스, 2012~2013)을 대상으로 일상과 노동 현장, 생애 전체에 '매개'된 성찰성의 감각과 실제를 분석함으로써, 현대인으로 하여금 성찰 감각을 회복하고, 이를 일상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성찰 연습'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만화『미생』[1]은 출판만화 방식으로 작업하여 웹툰으로 재편집한 것

1) 이 글에서는 주로 만화책『미생』을 분석대상으로 삼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드라마와 비교한다. 만화 제목은『 』로 표시하며, 드라마 및 여타 장르를 포괄한 범칭에는 〈 〉를 사용한다. 만화책『미생』을 인용할 경우, ':'의 왼쪽은 권수, 오

www.kci.go.kr

을 미디어DAUM에 연재해(예고편에서부터 145수로 완결된 시즌 1의 연재 기간은 2012.1.17.~2013.7.19.),[2] 화제작으로 인지도를 올리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3] 출간된 단행본의 누적 판매 부수는 30만부에 이른다.[4] 2012년에 문화콘텐츠 대통령상을 수상했다.[5]

인터넷에서 연재된 웹툰의 인기에 힘입어 주요 인물 6인의 과거 이야기를 단편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든 모바일 영화 〈미생 프리퀄〉(2013. 손태겸・김태희 감독. 회당 5~8분)이 제작・공개된 바 있다. 웹툰 원작은 다시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어 케이블 방송 tvN에서 총 20에 걸쳐 방영되었다(2014.10.17.~12.20. 김원석 연출, 정윤정 극본).[6] 드라마 또한

른쪽은 쪽수를 지시한다. 예컨대, '1권 2쪽'은 '1:2'로 약칭한다. 만화의 회차는 '수'이며, 드라마의 회차는 '국'이다.

2) 고동균에 따르면 웹툰 〈미생〉은 출판만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웹툰으로 재편집하는 과정으로 창작되었다(「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의 편집 변환 연구: 칸의 구조 변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쪽). 출판만화와 웹툰의 변환 요소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33쪽의 표를 참조.

3) 웹툰 '예고편'의 경우, 2016.7.6. 오후 12시 현재, 댓글이 1452개, '좋아요'를 통한 공감 표현은 12,687개다. 실질적인 1화에 해당하는 '제 0화 착수'는 댓글 112개편, '좋아요'는 11,606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생〉은 웹툰의 독자층을 40~50대 장년층까지 끌어올려 '국민웹툰'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한, 특수한 사례다(김수환, 「웹툰 〈미생〉이 말하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시대의 노동, 공동체 그리고 성장」, 『안과밖』 35호, 영미문학연구회, 2013, 202쪽).

4) 김수환, 「웹툰 〈미생〉이 말하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시대의 노동, 공동체 그리고 성장」, 『안과밖』 35호, 영미문학연구회, 2013, 201쪽.

5) 고동균,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의 편집 변환 연구: 칸의 구조 변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쪽 참조.

6) 만화 『미생』과 드라마 〈미생〉은 기본 서사 전개는 유사하지만 세부적 차이가 있으며, 인물의 성격 설정 및 대사도 다르다. 예컨대, 안영이는 만화에서 자기주도적 인물로 등장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상당히 주눅 든 태도를 유지한다. 〈미생〉 웹툰과 만화의 장르 형식 차이를 다룬 연구로는 고동균,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의 편집 변환 연구: 칸의 구조 변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김은영, 「미디어 콘텐츠의 재매개와 디지털 서사의 변주: 『미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이 있다.

www.kci.go.kr

원작 못지않게 화제를 끌어, AGB집계에 따르면 1회 평균 시청률 1.7%로 출발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종료되는 20회에는 8.4%를, 최고 시청률은 10.3%를 차지했다.[7]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제 12화인 2014.11.22.부터 종료지점까지 전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종합 1~2위, 드라마 1위를 기록하는 등, 케이블 드라마로서 유례없는 화제를 모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8]

웹툰/만화 원작이 드라마로 제작되고, 높은 시청률을 끌었던 사례는 이례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오랜 관행이고, 〈미생〉은 그 문화적 축적과 노하우의 맥락 속에서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는 〈미생〉의 인기가 여타의 인기 드라마나 트렌디 드라마, 또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와는 다른 의미에서 '화제성'을 창출하며 관심을 끄는 문화 콘텐츠로 부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맥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이른바, '경쟁주의'와 '스펙사회', '청년 실업' 등의 압박감에 시달리며, '루저 신드롬'에 노출된 청년 세대의 문제를 검정고시 고졸 출신의 인턴사원 장그래를 통해 정면으로 문제화함으로써, '르상티망(ressentiment)'에 노출된 수용자의 감성적 반향을 자극했다.[9] 이러한 설정은 일차적으로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

7) NAVER 블로그에서 재인용 (http://blog.naver.com/rkdxodnddjaak/220618503955)

8)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B%93%9C%EB%9D%BC%EB%A7%88+%EB%AF%B8%EC%83%9D+%EC%8B%9C%EC%B2%AD%EB%A5%A0&tltm=ee23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B%93%9C%EB%9D%BC%EB%A7%88+%EB%AF%B8%EC%83%9D+%EC%8B%9C%EC%B2%AD%EB%A5%A0&tltm=ee23

9) '르상티망'은 니체의 용어로, 권력의지에 의해 촉발된 강자의 공격욕에 대한 약자의 비합리적・격정적 분노, 자신이 사회적 약자라고 느끼게 될 때 자신의 패배 원인을 모두 강자에게 돌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종의 패배주의적 분노다(리차드 세넷, 『투게더』, 김병화 옮김, 2013, 92쪽의 옮긴이 각주를 참조).

www.kci.go.kr

세대에게 공감의 매개로 작용했다. 이차적으로는 장그래가 겪는 현실의 문제가 비단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는 한국사회 노동자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여지를 갖기 때문에, 〈미생〉이 전제하거나 환기하고 있는 노동 환경의 문제가 노동 일반의 문제, 수용자 일반의 문제로 환치되어 수용자의 폭넓은 공감을 확보했다.

둘째, 직장생활, 또는 노동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의 대기업(종합상사), '원 인터내셔널'을 설정하여 직장 생활의 '실제 모습'을 재현하는 '허구적 실험'을 제안했다. 여기서 '실제 모습'을 '허구적'으로 재현했다는 것은 '모순형용'이 될 만한 표현이다. 그러나 〈미생〉은 위계화된 직장 생활의 내적 갈등과 비정규직의 현실적 고민, 직장 내에서 작동하는 타자적 시선에 대한 현실감 있는 재현, 미혼 여성과 워킹맘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의 부각, 임원진을 다른 형태의 '계약직'으로 조명하는 비틀기의 등의 방법으로, 고용 불안의 문제와 직장 생활의 현실적 문제를 실감나게 문제화했다. 바로 이 점이 〈미생〉 갖는 형식적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습을 반영한 수사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10]

한편으로, 〈미생〉은 '직장'을 일종의 '노동 현장'으로 조명함으로써, 직장 내 업무 진행의 현실적 전개, 인간관계의 세밀한 재현, 가정생활과의 연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전면화했다. 이는 직장을 이성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르상티망'의 정서에 대해서는 최기숙, 「신자유주의와 마음의 고고학: 향수를 넘어서 성찰로, 잃어버린 마음/행동/태도에 대한 책임의 인문학」, 『동방학지』 167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253쪽을 참조. 본 논문에서 다룬 '르상티망'의 정서는 박상선, 「tvN 〈미생〉 속 감정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4-28쪽에 분석된 '자책과 열등감의 문화'와 근접성을 지닌다. 그 밖에 〈미생〉을 신자유주와 노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김수환의 선행 연구(「웹툰 〈미생〉이 말하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시대의 노동, 공동체 그리고 성장」, 『안과밖』 35호, 영미문학연구회, 2013)가 있다.

10) 이러한 서술은 루카치의 '리얼리즘론'(페터 뷔르거, 「文藝學에서의 반영 개념의 역할」, 루카치 외, 『리얼리즘 美學의 기초이론』, 이춘길 편역, 한길사, 1985)을 응용한 것이다.

www.kci.go.kr

간 로맨스의 매개나 배경 장소로 삼는 트렌디 드라마와는 구분된다.[11] 〈미생〉에서 노동 현장으로서 조명된 직장 생활 묘사의 현실성과 생활 감각의 핍진성은 수용자(독자/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공명하며 공감을 일으켰다.[12]

셋째, 『미생』은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라는 '부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인턴으로 근무하며 계약직으로 '발탁'되는 26세 '장그래'의 일상, 대기업 사원으로서 '피로사회'[13]의 징후를 몸으로 겪는 김 대

11) 직장을 배경으로 한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서는 나은희, 「드라마 〈미생〉의 서사, 신화 및 의미구조: 〈미생〉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7-12쪽; 한국에서 제작, 방영된 대개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직장생활'을 중심에 둔 경우, 그 핵심은 직장생활의 사실적 재현에 있다기보다는 직장을 매개로 한 남녀간의 '로맨스', 또는 직장에서 출세하기 위해 조작적으로 행해진 음모와 정의적 대응으로 초점화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지는 김수환, 「웹툰 〈미생〉이 말하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시대의 노동, 공동체 그리고 성장」, 『안과밖』 35호, 영미문학연구회, 2013, 205쪽; 나은희, 「드라마 〈미생〉의 서사, 신화 및 의미구조: 〈미생〉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3쪽에 분석된 내용과도 일치한다. 청년세대의 노동현실을 드라마 〈미생〉과 직접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로는 박찬주, 「청년세대의 노동현실에 대한 의미생산과 해석적 위치: 드라마 〈미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6, 56~77쪽을 참조.

12) KBS2에서 2013.4.1.~2013.5.21.에 방영된 16부작 〈직장의 신〉(전창근・노상훈 연출, 윤지희 극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미스 김(김혜수)이 등장하지만, 유례없이 탁월한 능력의 소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문적 소양의 발휘를 통해 '과장된' 모습을 보여, 사회 풍자적 코미디의 성격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미생〉의 관점과는 상이하다. 또한 여기에는 정규직 사원 '장규직'(오지호), '무정한'(이희준)과의 러브 로맨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로맨스 드라마의 전형적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면 웹툰이나 만화 〈미생〉에서 장그래와 안영이의 로맨스는 거의 드러나지 않거나, 최소한의 암시만 설정되었다. 드라마 〈미생〉에서는 로맨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장그래-안영이-장백기' 사이의 미묘한 삼각관계도 설정되지만, 결코 전체 서사의 중심이 될 수 없는 비중이다. 드라마 〈미생〉에 대한 시청자 반응은 한혜영・김명숙・오경수, 「TV 매체를 통한 일상학습의 의미탐색: 드라마 〈미생〉 시청자들의 댓글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한국성인교육학회, 2015에서의 시청자 댓글 분석을 참조.

13)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피로사회'는 신자유주의 사회를 특징적으로 명명한 한병철의

www.kci.go.kr

리, 오 과장, 신 차장의 삶을 비연속적 연쇄망[14] 속에서 그려낸 텍스트다. 장그래는 '루저세대'이자 '3포세대'의 상징적 인물이다.[15] 김 대리, 오 과장, 신 차장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대기업 사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로, 일중독, 분절화된 업무 진행과 그로 인한 노동소외,[16] 위계적 조직생활이 가하는 피로도, 업무 과다로 인한 가정으로부터의 소외 등, 신자유주의 사회를 정면으로 통과하며 지탱하는, '지치고 피곤한' 노동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은 우울, 불안, 좌절, 절망이라는 부정적 감

용어다(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14) '비연속적 연쇄망'이란, 매 회차마다 중심인물이 바뀌되, 일정한 순서나 룰을 갖지 않고 스토리 전개에 따라 자의적으로 채택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명명이다. 대체적인 중심인물은 '장그래'이지만, 회차에 따라 김 대리, 오 차장, 안영이, 서 차장, 장백기, 한석율 등으로 중심인물이 변경되며, 이들의 관계망도 상호 연동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연속적 연쇄망은 사회 구성원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적이라는 작가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독자에게는 탈규칙화된 구성을 통해 일종의 자율성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15) 〈미생〉에서 '연애'나 '로맨스'가 강조되지 않는 것도 '3포세대'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연애, 결혼, 출산'의 세 가지를 포기하는 청년층 세대를 일컫는 '3포세대'라는 용어는 2011년 『경향신문』의 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 말한다〉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다(한금윤,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연구: 언론 보도와 대학생의 '자기서사' 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8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5, 7쪽). 그 밖에 '3포세대'에 대한 논의는 방희경・유수미, 「한국언론과 세대론 전쟁」,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15를 참조.

16)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가 정의한 '소외'의 개념은 특수한 정신병리학적 범주, 자아의 고통스러운 분열, 접근 불가능한 타자의 신체와 관계된, 타자와 그리고 결국은 자신과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없는 비동정적 유기체의 탈진된 느낌과 관계된 괴로움과 좌절의 느낌 등이다(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노동하는 영혼: 소외에서 자율로』,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2, 151쪽.). 〈미생〉에서 업무 분절로 인한 노동소외가 부정적으로 조명된 사례는 전체 업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행한 부정부패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때로는 그것을 '짐작'하면서 '대처'해야 하는 모호성 자체가 대기업 사원의 업무(능력)로 상정되었다(영업 3팀의 박과장과의 에피소드, 전무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차장이 사표를 내게 되는 정황 등).

www.kci.go.kr

정의 재현에 치우치지 않고, 곤고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교환하며 기억하는 인간애와 희망의 가능성을 포착하는 감성 구도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미생〉에는 타깃이 된 '공공의 적'으로서의 악인이 등장하지 않으며,[17] 완벽성을 갖춘 판타지적 존재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는 권위주의와 성과주의의 '괴물'이 된 인물(마부장, 성대리)이 '현실적 공감대'를 자극하는 인물로 등장하여, 텍스트 내부(만화/드라마)와 외부(독자/시청자)의 공분을 사는 형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18]

〈미생〉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은 일상을 관찰하고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혜와 통찰을 실천하고 공유하며 '각자의 바둑'에 상응하는 '자

17) 윤태호 작가는 영업 3팀에 들어온 '박 과장'을 '『미생』의 유일한 악인 캐릭터'(윤태호・에이코믹스, 『미생 메이킹 스토리』, 위즈덤하우스, 2014, 112쪽)라고 정리했다. 박 과장은 사내 부정부패를 일으킨 문제적 인물이다. 후반부에 박과장이 비리에 빠지게 된 과정에 작용한 '이익 분배'의 '문제점'이라는 공감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이해 가능한 악행'으로 수용되도록 구조화했다. 박과장은 팀 내부의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해 파직된다.

18) 마초적인 '마부장'은 '징계/처벌/제거'되어야 할 '악인'이라기보다는 '권위적/가부장적/마초적' 성격으로 '여성/약자'를 '무시'하는 '현실적 인물'이자, '공존의 파트너'로 설정되었다. '회사에 꼭 있는' 인물로 상정되는 '마부장'의 존재감과 그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그려낸 점 또한 〈미생〉의 공감 구조에 기여한 리얼리티의 일부다(인터넷에서 '마부장'을 '성희롱 상사' 또는 '갑질 상사'로 명명한 글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성대리'는 부하직원의 성과를 가로채는 인물로, 인터넷에서 많은 '회사원'들로부터 '현실감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받았다(예컨대, '알래스카수첩'의 「성대리와 마부장의 진실」[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88415] 등.). 이 두 인물은 모두 '사내 정치'와 '라인'에 힘입어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부정적 인물이자 내부적 '공공의 적'으로 설정되었다. 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공감하는 네티즌의 글이 매우 많다. 이에 비해 '오 차장'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로망', '판타지', '기대'라는 관점의 글이 많다. 『미생』은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제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자발적 통제', '업무상 처벌'의 대상으로 그려냈다. 〈미생 스페셜: 나는 아직... 미생〉 1부 '未生, 그래서 美生'에서 오상식 역을 맡은 배우 김성민은 스스로 '판타지적 인물'로 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

www.kci.go.kr

기 생애'로부터 '성찰의 시선'을 가동시키는 '인문적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19] '성찰적 시선'과 '통찰의 힘'은 경쟁주의, 스펙사회, 루저세대, 3포 세대, 비정규직이 증폭되는 노동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독자/수용자)의 공감을 일으키면서도, 자기 삶을 긍정하게 하는 생애 동력으로 작용했다.[20]

위의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세 번째 부분이다.[21] 그런 이유로 이 글은 웹툰/만화의 서사 구성이나 인물 형상을 분석하는 전형적인 서사 분석에 한정하지 않는다. 또한 문화콘텐츠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미디어 변환에 따른 서사 구조나 재현 방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에도 집중하지 않는다.

---

19) '왜 성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최기숙, 「신자유주의와 마음의 고고학: 향수를 넘어서 성찰로, 잃어버린 마음/행동/태도에 대한 책임의 인문학」, 『동방학지』 167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최기숙, 「계몽의 이면, 무시와 혐오의 감성 정치: 『한성신보』(1895-1904) 잡보란을 통해 본 '조선'의 표상화 맥락과 감정 수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장, "계몽이라는 정의(正義)와 '무시'의 정치성: '무지'는 무시되어도 좋은가"를 참조.

20) 바로 이러한 점이 직장생활을 다루면서도 명문대 출신의 시마 코사쿠를 등장시켜 조직 내 업무 전략과 승진, 출세, 로맨스에 초점을 맞춘 히로카네 켄시(弘兼憲史) 원작의 일본 만화 『시마 과장』 1~17권(서울문화사, 1996~2001)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21) 웹툰/만화 『미생』이 공개된 지 4년 남짓이고, 드라마로 방영된 것은 채 2년이 되지 않았으나,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르변이에 관해서는 이미 석·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된 바 있다(고동균,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의 편집 변환 연구: 칸의 구조 변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석사논문, 2015; 김은영, 「미디어 콘텐츠의 재매개와 디지털 서사의 변주: 『미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5). 〈미생〉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서 김명신의 글(「TV 드라마 〈미생〉의 공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016, 32-27쪽)은 드라마 〈미생〉의 '옥상' 공간이 갖는 사색과 성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다룬 성찰성과 관련된다. 그 밖에 〈미생〉에 관한 상세한 서사분석은 나은희, 「드라마 〈미생〉의 서사, 신화 및 의미구조: 〈미생〉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을 참조할 것.

www.kci.go.kr

그보다 〈미생〉이라는 텍스트가 성취한 '성찰'과 '공감 동력'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무한 경쟁 시스템의 노동 시장에서 피로도가 가중되는 노동 환경의 불가피한 도래에도 불구하고, 〈미생〉이 성취한 인간과 삶에 대한 긍정의 태도와 희망의 가능성, 그것을 찾고 구하며 전하고 기억하는 인간적인 태도, 시선, 표정, 모습을 일종의 '인문 자산'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성찰성의 획득과 확보, 공유와 훈련이 가능한지를 제언하고, 감성 능력과 성찰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생〉에 구현된 성찰의 방법과 내용, 실천과 적용, 재사유, 성찰의 동력과 영향 및 결과에 주목할 것이다.[22] 이를 위해 서사 분석, 심리학, 젠더 스터디, 감성 연구, 문화연구의 방법론을 분석의 전제 및 맥락으로 활용하거나 교차적으로 응용하는 학제간 연구를 수행한다.

2. 일상은 어떻게 성찰의 매개가 되는가

『미생』에는 매 회마다 작중 인물의 독백과 발화를 통해 성찰적 대사와 감각, 인지적 현황이 재현된다. 주인공 장그래의 독백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때로는 작중 인물들이 일상의 자연스런 대화 과정 중에 스스로의 성찰적 인식과 감각을 드러내거나, 의미 있게 기억하고 온축한 타인의 성찰성을 활용하는 모습이 형상화된다. 여기에는 컷의 안팎에 자연스럽게 등장해 독자와의 소통을 매개하는 '작가' 자신도 포

22) 주로 주인공 장그래의 사색, 독백, 대화, 행동에 주목하되, 245쪽의 각주 14)번에 언급한 '비연속적 연쇄망'의 구조에 따라, 성찰성 분석에 유효한 여러 인물을 선택적・교차적 대상으로 삼는다.

www.kci.go.kr

함된다.[23] 말하자면 '성찰성'은 『미생』 전체를 관통하며 미시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핵심 요소다. 이것이 『미생』을 비정규직의 노동현실, 직장생활의 갈등과 애환, 신자유주의가 산출한 '과로사회'의 스케치라고만은 볼 수 없는 이유다.

이 장에서는 『미생』에서 수행된 각 인물들의 성찰의 방법, 내용, 방향, 귀결(실천과의 연계)를 분석함으로써, 습득/활용 가능한 성찰 연습의 매개로 삼는다.

2-1. 내적 독백: 일상을 복기하는 성찰 습관

만화 『미생』의 스토리라인을 잇는 주도적 나레이터는 장그래이며, 그 형식은 독백체다. 인물 시점의 화자가 독백체로 서사를 이끌면서 '공감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인물 시점의 '판단과 독해의 시선'을 작동시킨다는 의미에서, '주체적 성찰성'을 담보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회상과 재구성, 현실과의 유비적 연결성에는 반드시 사유 규칙, 시선, 입장이 '매개'되며, 이것이 수용자의 공감을 수반할 경우, 이는 개인의 성찰에서 나아가 사회적 성찰의 매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4]

---

23) 예컨대, 8권 138쪽에는 장백기의 입을 빌어, "작가가 회사 생활을 해봤나....."라는 대사가 제시된다. 이는 독자에게는 일종의 '유머'로 수용되는데, 이미 대중에게 유명해져 이력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진 윤태호 작가가 독자와 경쾌하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메타표현'에 해당한다(메타표현이란 '만화 그 자체로 언급되는 만화 표현으로, 만화라는 표상체계의 특질과 한계를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는 '컷 선의 변경'과 '웹코믹스 속 작가의 등장'이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후자다. 권경민, 「웹코믹스의 메타표현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6집,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9, 212쪽). 작가는 웹툰 연재가 끝난 뒤,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은 작가가 어떻게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후기를 작성했다.(2013.7.23. 「후기-1」 DAUM 웹툰)

www.kci.go.kr

장그래의 독백은 세상과 사회, 타인과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응시'의 철학을 수행하는 유력한 방식이다.[25] 장그래는 독백을 통해 주체와 타자, 일상과 사회, 세상과 인생을 읽고, 그것을 자기 삶의 태도와 입장에 끊임없이 참조하며 자기를 구성하는 '메타적 사유'의 수행자다.

『미생』의 서사에서 장그래의 '독백'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자신의 현실을 바둑에 비유할 때다. 이는 현재와 과거가 만나 바둑이 업무와 교섭하고, 실패가 의지로 전환하는 순간의 접점을 구성한다. 장그래가 바둑을 성찰의 매개로 삼게 된 계기는 3권(47수)에 처음 제시되었다. 장그래는 연습생 시절, 입단한 친구에게 독설을 던지고 그로부터 되돌려 받은 질문의 화살을 일종의 '가책'으로 간직해 왔다(3:227~228). 그 '마음의 짐'은 장그래에게 보이지 않는 성찰 동력이 되었고, 그의 일상과 삶 전체를 지탱한다.

처음에 장그래는 바둑에 입문한 계기와 7년간의 연습생 시절, 입단 실패로 인한 사회 진출의 과정에 대해 '회고'의 관점으로 서술했다. 과거의 현재적 소환에는 기억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과거의 시간과 사건을 재구성하는 '스토리텔링'에는 선택과 설계의 과정이 매개된다. 여기에는 반드시 심리적 필터나 관점(인생관, 세계관, 철학)의 개입이 수반된다.

『미생』은 매 회를 바둑의 '수'에 견주는 구성을 취한다. 본 내용의 전

24) 윤태호의 다른 작품인 『이끼』(1~4권, 재미주의, 2014)와 『파인』(1~4권, 재미주의)에서도 인물의 독백을 통한 성찰성이 발견된다. 다만, 『이끼』에서의 독백은 사건의 비밀을 탐색하는 추리 과정에 동원되고 있어 성찰성에 집중되지 않았으며, 『파인』에서 독백의 비중은 매우 적다.

25) 서사에서 '독백'이 항상 '성찰성'을 매개하는 것은 아니다. 독백은 사색이 아니라 중얼거림, 불평과 불만의 토로, 저주와 분노, 정신분열적 징후로도 표현되기 때문이다. 〈미생〉의 성찰성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른 바, 인물별 '명언' 시리즈로 목록화될 정도로 주목을 끌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www.kci.go.kr

개에 앞서 '제 1회 응씨배 결승전'에서 한국의 조훈현 9단(흑)과 중국의 네웨이핑(攝偉平) 9단(백)의 실제 대국의 기보를 제시하고, 해설을 병치했다. 이러한 텍스트 구성은 〈미생〉의 서사 구도가 '바둑 두기'의 과정과 유비적, 또는 오버 랩 관계를 전략적으로 차용했음을 시사한다.

박치문 기자가 참여한 기보 해설의 서술에는 바둑 두기라는 게임의 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사하는 세상 읽기나 생애 전략에 대한 통찰이 포함된다. 때로는 바둑 두기의 결과가 아니라, 바둑을 두는 '태도'나 '행위 자체', 그것이 환기하는 생에 대한 식견과 혜안을 기술한 경우도 적지 않다. 〈미생〉의 컷에도 바둑 용어가 적지 않게 인용되었다.[26] 이는 "누구나 각자의 바둑을 두고 있다"(1:278)는 주인공 '장그래'의 대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미생〉이 사회, 또는 세계를 '바둑판'에 견주고, 그 안에서의 삶을 '바둑 두기'라는 게임의 법칙과 연동시켜 해석하려는 '기획'으로 설계되었음을 암시한다. 작중 김대리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장그래에게 바둑이란 '세상을 보는 필터'(3:233)이며, '복기'는 '성공/실패'라는 세속적 가치판단을 뛰어넘는 성찰-동력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장그래에게 바둑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전략 자원'이다. 예컨대, 장그래는 미주지역 섬유 팀장 스티브와의 불화로 고민하는 상사에게 바둑을 예로 들어 사과를 제안한다(1:291). 한편, 업무 진행에 곤란을 겪는 박 대리에게는 '봉위수기(逢危須棄. 위기에 처한 경우 불필요한 것을 벼려라.)'라는 바둑의 10계명(圍棋十訣)을 떠올려 힌트를 전한다(2:63). PT 시험 당시에는 어린 시절 바둑에 조언해 준 사범을 떠올려(2:208; 209) 위기 돌파의 전략적 힌트로 삼았다. 바둑의 '수'와 기획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설득력'임을 발견하는 과정(3:100)은 장그래의

26) 예컨대, '곤마(困馬)'(1:57), '환격'(1:79), '기풍' (8:234) 등.

www.kci.go.kr

과거가 현실에 개입함으로써, 실패가 아닌 '역량'으로 현재화하는 계기를 보여준다.

둘째, 바둑은 장그래가 일상과 생애를 유비적으로 대응시켜 현재를 점검하고 매개적 도구다. 회사에서 새로 배운 것이 있을 때, 장그래는 기보를 살피며 자신을 점검했다(3:105). 집으로 초대한 김대리에게 바둑의 다면기에 빗대, 입장에 따라 업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하는 과정(3:222)은 장그래가 성찰성을 확장적으로 응용한 사례다.

셋째, 바둑을 두던 연습생 시절의 경험은 장그래가 주변 인물의 성격과 지향, 철학을 가늠하는 렌즈로 작용한다. 예컨대, 장그래는 한석율과 PT준비를 할 때 바둑에 견주어 그의 수를 계산해(2:133), '일벌레'(2:136)라는 판단에 이른다. 승진이나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일 자체의 멋과 맛에 취한 오 차장에게서 장그래는 상금에 연연하지 않고 대국을 즐겼던 이세돌을 떠올린다(3:154). 바둑과 현실, 과거와 현재는 과거의 실패를 경험 자산으로 위치 변경하여 끌어안은 주체에게 오버 랩 된다. 그것은 의사결정과 판단력을 유도하고 관점을 생성하는 유효한 자산으로 작동한다.

넷째, 바둑에서 배웠던 지혜와 통찰이 일상에서 확인될 때, 그 가치는 증폭된다. 장그래는 일과 자기 정체성의 관계 고민을 반영한 '그래봤자'와 '그대로'의 사이에서 '그래도'를 택한 김대리에게서 조치훈 9단을 떠올리며, 삶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확인한다(4:290). 그에게 과거와 현재, 일상과 바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장그래는 '성찰'하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이 실패했던 바둑 연습생 시절의 경험을 생애성찰 자원으로 위치시킨다. 장그래는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지속 가능한 성찰 자원'[27]으로 재위치시킴으

27) '지속 가능한 성찰 자원'이란 현대사회에서 마모되거나 상실, 망각, 훼손되는 인성과

www.kci.go.kr

로써, 노동 현장의 능동적 주체로 성장한다.

2-2. 일상 관찰: 정동 기호의 판독과 경험 자산화(Personal DB화)

『미생』이 보여주는 성찰성은 등장인물 대부분의 몫으로 분화되고 확장되어 있다. 이들이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고 문제 해결 방안이나 삶의 영감을 받는 대상은 일상생활의 경험 그 자체다. 『미생』에서 일상이 성찰의 매개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정동 기호(affective sign)[28]의 판독을 경험 자산으로 삼아 타인과 대화함으로써 자기 견해를 수정하는 방식. 둘째, 일상의 관찰을 통해 삶의 지혜와 통찰에 도달하는 방법.

첫째, 『미생』에는 각 인물이 독백의 형식으로 서로를 관찰하고 탐색하며, 의지하고 투사하는 과정이 재현된다.

관계성의 기본 요소를 회복하고 지속하기 위한 인문적 모색의 방법이자, 실천적 대안으로 제안한 필자의 용어다.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지속 가능한 '감성-성찰' 자원 구축을 위한 한국 '고전/전통' 자원의 재맥락화」(『동방학지』 17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를 참조.

28) '정동(affect)'은 스피노자-들뢰즈의 맥락에서 철학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변용(affectio), 즉 신체나 정신신체에서 일어나는 양태적 변화, 또는 그 변용을 촉발시킨 신체나 정신 자체의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하나의 이미지나 관념에서 다른 이미지나 관념으로의 전이 및 체험적 이행과 지속을 함축하는 것으로, '감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쁨, 슬픔, 공포, 분노 같은 감정이 의미론적·기호론적으로 정리된 것이라면, 정동은 질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이는 정서, 또는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Brian Massumi는 정동이 의식을 매개할 시간적 여유 없이 바깥의 자극이나 정보가 직접적으로 신체를 촉발시킨다는 의미에서 '내장적 감각(visceral sensibility)'이라고 표현했다(이토 마모루, 『정동의 힘』, 김미정 옮김, 갈무리, 2016, 165-169; 295쪽). 이 글에서는 철학적 논의의 '정동'에 대한 이해를 참조하되, 외부와 내면의 변화가 촉발시킨 감각적, 인지적 변환의 신체 기호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감정뿐만이 아니라 기분, 분위기, 기색, 기미, 느낌, 인상, 표정, 신체 기호 등을 포괄해 '정동 기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www.kci.go.kr

장그래가 오상식(과장), 김동식(대리), 장백기(인턴), 안영이(인턴), 박차장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을 보자.

* '오과장님, 내 상사가 될 분이다. 기풍, 첫인상의 느낌은... 눈이 항상 충혈돼 있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타입은 아닌 듯하다. 구형 휴대폰, 구형 노트북, 낡은 수첩에 볼펜, 잡다한 낙서들. 정리정돈돠는 거리가 먼 생활... (...) 이 사람의 기풍은... (...) 피곤에 쩔어 있지만 일에서만큼은 완벽을 추구하는...? 저 충혈된 눈은 집념과 책임감을 말하는 것일까?' (1:80~84)
* (김동식에 대해) '첫인상은 싹싹하고 친절하다. 경쾌한 행마랄까. 사소하게 웃는다.' (1:93)
* (장백기에 대해) '이거 참 실용적인 친구네.' (1:99)
* (안영이에 대해) '약간 수선스런 다른 인턴들과 달리 차분하고 침착하다.' (1:109)
* (박차장에 대해): '수는 별로 세 보이지 않지만... 소매에 상대 바둑알 몇 개 숨겨 둔 느낌?' (1:87)

장그래는 사람들의 외모, 분위기, 인상, 대화와 말투를 통해 무수한 '의미 기호'와 '정동 기호', 살아온 내력의 '신체 징후'를 읽어내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과거-현재-미래의) 정보를 판독한다. 소리 나지 않는 내면의 음성으로 읽어낸, '묵음 처리된' 정보 판단은 장그래 뿐만 아니라, 인물 모두에게 수행되는, 보편화된 행위다. 당연히, 상사의 부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부하의 상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29]

그러나, 개인이 판독한 정동 기호는 자기 안에 갇힌 폐쇄성을 지니므

29) '스펙 없는' 인턴 장그래가 자기보다 빼어난 스펙과 직위의 인물을 판단하는 과정은 스펙사회의 '평가제도'가 갖는 모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함축한다.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몫이지만 학력사회/위계사회에서 '평가'는 이른 바, '권력/문화/학력' 자본을 소유한 자의 몫으로 한정/독점되기 때문이다. 텍스트 내부에서 장그래는 문화자본을 박탈당한 자로 등장하지만, 그가 응시하는 시선으로 거의 전체의 내러티브가 주도된다는 것은 '마이너리티'의 '응시의 힘'을 부각시켜 문화적 힘을 부여하고자 한 작가적 선택이다.

www.kci.go.kr

로, '대화'와 '관계'라는 열린회로를 통해 검증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오 팀장: "남을 파악한다는 게 결국 자기 생각 투사하는 거라고. 그러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야." (6:113) (중략)
* 김 대리: "저 양반(필자 주: 위의 오 팀장) 별명이 사시야, 사시. 이쪽 보는 척하면서 저쪽 보는 사람. 헐렁한 척하면서 용의주도한 사람." (중략) "뱃속에 구렁이 열 마리는 들었을 거야." (중략) (6:115~116)

장그래는 타인에 대한 인상 기호와 정동 기호의 판독을 제 삼자와의 대화를 통해 점검하고 성찰을 통해 수정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감각, 직장생활을 하는 합리적 '수'를 단련한다. 감각적 정보망을 통해 축적되고, 열린회로를 통해 수정/보완된 데이터는 스스로를 '상사맨'으로 조율하는 모종의 모듈이자 프로그래밍에 해당한다.

일상생활에서 관찰을 통한 사유는 각자의 내면에서 작동할 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 활동이다. 『미생』에서 이는 만화적 형식을 통해 시각(이미지)과 언어(독백)로 재현함으로써, '문자화되지 않은' 내적 사유를 공유 가능한 성찰 자원으로 제시했다.

둘째, 『미생』의 인물이 성찰성을 습득하는 또 다른 경로는 서민의 일상생활이다. 작중 인물들은 인생에 대한 교훈, 지혜, 통찰을 서민의 일상에서 체득함으로써, 서민의 삶 자체를 가치화한다. 예컨대, 출근하던 장그래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떠올리며,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해 생각한다.[30] 회사 근처 식당의 영업 방식을 관찰하고 PT 전략의 아이디어를 떠올린(6:30) 장그래에게, '경험-지(知)'는 이미 유력한 성찰 도구, 응용 가능한 정보-지(知)'로 내면화된다.

검정고시 고졸 출신의 장그래가 성찰성을 습득하는 경로가 '책'이나

30) '말하지 않아도 행동이 보여지면 그게 말인 거여. 어른 흉내 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해라.'(3:11)는 어머니의 조언은 생전에 남편의 습관을 지켜본 경험에 근거해 있다.

www.kci.go.kr

'학교', '스펙쌓기'가 아닌, 자신의 과거(바둑 연습생으로서의 경험)와 서민적 일상(가족, 동료)이라는 설정은 자못 역설적이다. 이는 그 자체로 '학력 중심 사회'의 모순, '스펙사회'의 비합리성을 비판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서민의 평범한 일상이 정당한 인문 가치와 문화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근거가 된다. 일상의 관찰을 통해 경험-지를 습득하며 삶의 성찰성을 확장하는 과정은 장그래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은 『미생』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의 자연스런 태도이자 생활 방식으로 재현된다.[31] 『미생』에서 성찰의 편린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만한 것'으로 가치화하며 지탱하는 부력이다.

3. 노동 현장, 성찰하는 노동자: 성찰은 어떻게 공감의 매개가 되는가

『미생』에서 장그래가 수행하는 성찰성은 이중의 모순과 역설을 감당한다. 첫째, 장그래는 검정고시 고졸 출신의 불리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미생』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성찰성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성찰 능력이 학력이나 스펙과는 무관한 영역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학이 '성찰성'을 교육하는 데 관심이 없었거나 무기력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장 생활 연차나 직위와 성찰 능력이 결코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31) 이 글에서는 관찰 데이터를 자기 목적(의도)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해롭게 하고, 통제하거나 복종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은 '성찰'로 판단하지 않는다. 성찰은 비판의 화살을 외부-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되돌리는 수행적 힘으로 정의한다. 이에 관해서는 최기숙, 「혜환(惠寰)・무명자(無名子)・항해(沆瀣)의 비평적 글쓰기를 통해 본 '인(人)-문(文)'의 경계와 글쓰기의 형이상학」, 『동방학지』 15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215-216쪽을 참조.

www.kci.go.kr

둘째, 장그래는 애초에 김대리로부터 사회적응에 목숨을 건 '장기수'(3:209) 같아 보인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적응'에 애쓰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는 '타자화된 모습'이었을 뿐, 집으로 초대한 김대리에게 보여준 직장생활 복기 노트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장그래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과 일터(회사), 업무에 대한 '성찰'을 수행해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개인의 성찰이 '외화'되거나 '공유'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는 '내면'은 어떻게 '외화/공유'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계된다. 이 글에서는 타자와의 대화, 공감적 이해 등에 주목한다.).

이 장에서는 직장생활, 나아가 '노동 현장'에서 성찰성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상상된', 성찰 자원의 습득과 확장, 공유와 심화 과정에 대한 작가적 모색을 분석하고, 그것이 현실에 환기하는 성찰 연습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이때, 관계, 상생,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성찰이 어떻게 공감의 매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응답을 모색해 볼 것이다.

3-1. 관계: 대화의 힘, 증폭되는 성찰 동력

> "솔직히 그 사람들이랑 가슴 깊은 이야기 하겠어요? 서로 취미나 나누고 마는 거지. 골프 얘기, 트윈스 얘기, 이글스 얘기 그리고 야구 얘기... 주식 얘기. 그 중에 제일은 골프 얘기니라...가 결론이더라고. 서로 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적당한 로비 받아주고, 적당한 리베이트 인정해주고." (8:15)

위 사례는 한석율이 장그래에게 사내 인간관계와 대화법에 대해 '조언'하는 옥상 장면이다. 여기서 대화란 서로의 사생활, 내면, 가치, 신념을 침범하지 않는 '안전망' 안에 놓여 있다. 당연히 여기에는 개인 간 심층적인 소통, 성찰적 대화는 배제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들은 회사

www.kci.go.kr

내 '대화의 규율'을 논의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진정한 의사소통'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직장생활'에 대한 성찰성을 공유한다.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직업, 경쟁, 경제적 결정에만 관심을 쏟는'[32] 이들이 타인에게 무관심한 것은 경쟁사회의 자연스러운 징후다.[33] 『미생』은 바로 이러한 '경쟁'과 '성과주의'가 작동하는 직장생활에서도 모종의 노력을 통해 성찰성을 수행하고 공유하여, 관계의 신뢰도를 증폭시키고, 상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수행하는 유력한 매개는 인물 간에 오가는 '성찰적 대화'다. 물론, 『미생』에 제시된 상당수의 대화는 업무 진행에 관한 '사무적 영역'이다. 이는 논의구조, 보고, 전달, 토론, 수용 등, 일반적인 회사 내 의사소통 구조를 충실히 반영한다.

그러나 『미생』의 대화는 여기서 나아가 인물 간 인식의 확장과 심화, 공감대의 형성과 성장을 독려하는 성찰적 성향을 보인다. 개인의 감각적 인지와 판단은 진정을 교환하는 대화를 통해 수정되고 확장된다. 드라마의 로맨스 서사가 남녀 간의 진정성의 소통과 결합의 완성으로서 겨냥된다면, 상대적으로 로맨스가 현저히 축소되거나 생략된 〈미생〉의 서사구조에서는 진정성의 교감이 이성이 아닌, '인간관계' 일반으로 확대된다. 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찰적 대화는 각자의 생각, 입장, 관점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는 관계의 책임성을 실천하는 유력한

32)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정유리 옮김, 난장, 2013, 80-81쪽.
33) 신자유주의의 인간성 및 관계성의 부정적이고도 파괴적인 징후에 관해서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 리차드 세넷,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조용 옮김, 문예출판사, 2002;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정일준 옮김, 새물결, 2008; 지그문트 바우만,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홍지수 옮김, 봄아필, 2013; 지그문트 바우만 · 레오니다스 돈스키스, 『도덕적 불감증』, 최호영 옮김, 책읽는수요일, 2015 등.

www.kci.go.kr

매개다.

* 김석호: “그래 씨는 안 그래요? ‘회사에 간다’라고 할 때, 진짜 회사를 생각해요?”
* 장그래: “글쎄요. 그럼 뭐 생각해요?”
* 김석호: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엿 같으면 회사가 지옥.” (8:187~188)

본사로 발령 났던 김석호와 오랜 만에 마주친 장그래는 일상적 대화를 통해 회사 생활의 철학을 교환한다. ‘회사=상사’라는 김석호의 관점은 ‘일=사람’, ‘인생=관계’라는 관점으로 연동되고, 이는 『미생』이 전하는 모종의 ‘노동 철학’을 구성한다. 자본주의 산업화 시대의 시스템에서 생산 결과로부터 생산자가 배제되는 ‘노동소외’가 아니라, ‘일=사람’이라는 발상을 통해 직장생활, 또는 노동 현장의 인문화 가능성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 김대리: “직장인이 승진하고 월급 빼면 뭐 있나? 아무리 좋은 의미 갖다 붙여봤자 말이야.” (4:25) (중략)
* 장그래: “대리님도 승진과 월급이 전부하고 생각하세요?” (4:26)
* 김대리: “아직까지. 그것 말고 다른 걸 찾지 못해서…” (4:26)

위에서 대화의 성찰성은 김대리의 ‘선언’에 대한 장그래의 ‘질문’을 통해 확보되었다. 인물들은 ‘대화’를 통해 회사생활과 생애 비전에 대한 응답을 모색한다.[34]

34) 이러한 인물 간 대화는 독자에게도 직장생활과 생애 의미에 대한 성찰적 질문과 응답을 유도해낸다. 필자는 이 논문 239쪽 *의 발표에서 〈미생〉의 성찰적 대화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언어교육과 성찰훈련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예컨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위 질문을 예로 들고, 학생들에게는 ‘대학교/회사/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답하게 함으로써, 문장 익히기를 통한 성찰연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재인 『외국인

www.kci.go.kr

한편, 성찰적 대화란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수긍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35] 진심어린 충고를 할 수 있는 '책임성'을 수반한다.

* 장그래: "화장실에 (필자 주: 박과장과) 같이 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 김대리: "그래 씨, 그 느낌이란 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판단의 적이지. 자기기 짐작한 감으로, 자기가 게임에 빠질 수 있다고." (4:218)

김대리는 장그래가 박과장(드라마에서 배우 김희원)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 느낌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충고한다. 김대리의 '충고'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에 바탕을 둔 일종의 통찰에 해당한다. 김대리가 장그래의 말에 반응한 것은 관계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위험한 판단'을 하는 동료를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생』에서 성찰적 대화는 개인의 자신의 감각과 시선을 수정할 기회를 얻는 유의미한 매개다.

둘째, 성찰적 대화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진심)[36]이 전제

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중급(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연세대출판부, 2011)에서는 어휘를 주제별로 분류했는데, 여기에 '성찰/사유/사색'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교재를 활용할 경우, 〈미생〉을 활용한 성찰성 교육은 '인간관계' 항목에서 '겸손하다, 고백하다, 공경하다, 기대하다, 나누다, 대화하다, 이해하다, 칭찬, 후회하다' 등의 어휘 교육과 연계해 수행할 수 있다. '문화' 항목에서의 '감동하다, 대단하다, 벅차다, 훌륭하다' 등의 어휘 교육과도 결합시킬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은 『미생』의 독백과 대화를 통한 성찰성 분석 및 성찰 훈련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하, 〈미생〉이 구현한 성찰성을 일상과 교육 현장에서의 성찰 훈련을 위한 자료로 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분에 간단히 각주로 서술한다.

35) 관계의 책임성에는 관심, 배려, 공감 행위에 필요한 마음의 집중과 정서적 이해, 시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쁜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관계의 끈'을 잃지 않기 위해 '물체처럼 공존하는 것(무감각[apathy]으로서의 무반응, 또는 동석했지만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것)', 타인의 발언이나 의사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은 '관계의 책임성'을 회피하면서도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이에게서 발견되는 '행동 징후' 중의 하나다.

36) '진정성'이란 영어로 'authenticity'로 번역되는데, 때로는 진위성, 진품성, 온전성, 정통

www.kci.go.kr

된다. 인턴사원 PT 파트너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안영이와 장그래의 대화를 보자.

* 안영이: “파트너를 믿어야 할 것 같아요. 경쟁해야 할 대상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음험함이 드러나거든요. 판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 “ 내가 내 파트너를 끝까지 신뢰한다면 판 안에 있는 눈먼 파트너는 눈치 채지 못할지라도, 밖에 있는 심사위원들은 나를 봐줄 거예요.”
* 장그래: “파트너 선택이 핵심인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문제란 말이죠?”

(1:145~149)

파트너를 정하는 일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안영이와 장그래의 감각과 판단이 교환되며, 장그래는 이 대화를 성찰적으로 수용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성찰하여 판단한 것이다. 대화는 주체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정밀하게 단련하는 훈련의 매개다.

* 김대리: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어. 실패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성공은 뭐냐에도 말할 수 있어야지. 취직해보니까 말야, 성공이 아니고 문을 하나 연 느낌이더라고. 어쩌면 우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어가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 장그래: “성공은요?”
* 김대리: “자기가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린 문제 아닌가? 일을 하다 보면 깨진 계약인데도 성장한 것 같고, 뿌듯한 케이스도 있어. 그건 실패한 걸까?”
* 장그래: “졌어도 기분 좋은 바둑이 있어요. 그런 걸까요?”
* 김대리: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3:234)

위 사례는 장그래가 박대리를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업무 복기 노트

성, 고유성 등으로도 번역된다(앤드류 포터,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노시내 옮김, 마티, 2016, 11쪽 각주를 참조).

www.kci.go.kr

를 보여주며 나눈 대화다. 박대리는 직장생활을 하며 깨달은 '생애 감각'을 토로하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나눈다. 장그래는 이를 자신의 과거(경험)에 비추어 유비적으로 대응시키는 성찰적 사고를 수행한다. 철학을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의 간헐적 지속은 『미생』의 인물이 각자의 성찰성을 심화하고, 상호간에 신뢰와 책임감을 증폭시키는 매개다.

셋째, 성찰적 대화를 통해 타자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레비나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얼굴'이란 오직 '타자'만이 확인할 수 있기에,[37] 주체의 자기 인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 대화가 필요하다.

* 장백기: "그래도 애들 다 크면 니가 제일 편할 거 아냐. 난 아무리 빨라도 오십 까진 뺑이쳐야 돼."
* 친　구: "오늘이 없는 내일이 무슨 소용이겠냐. 그나저나 너, 소개팅 같은 거 안 하냐? 취직했는데 이젠 결혼 생각해야지."
* 장백기: "일이 눈에 좀 보이고 나서. 아직 내가 어떤 판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중략)
* 친　구: "판 위에서 비틀거리는 놈이 어떻게 판을 봐?" (4:59~60)

장백기는 친구의 조언을 통해 비로소 '판 안'에서는 '판'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기 한계를 깨기 위해서는 바깥의 시선에서 조언할 수 있는 외부의 타자가 필요하다. 레비나스가 언급한 '얼굴'이 '주체의 삶' 또는 그 '내력'으로 환치될 수 있다면, 주체에 대한 성찰적 이해는 오직 '타자'를 매개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38] 그러나 그것은 타자를 유

37)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38) 그런 점에서 성찰이란 타자 없이 타자적 시선을 내면화하여 작동시킬 때, 비로소 시작되는 활동이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기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

www.kci.go.kr

일하고도 막다른 골목으로 매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회귀적인 열린 방식으로 매개할 때만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체에게 타자가 가하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허용-가능하고 성찰-제고적인 방식일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다. 살면서 친구와 동료, 진정성을 나눌 수 있는 타인과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39]

넷째, 성찰의 시선은 타고난 것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의 [사회적・인식적・성찰적] '위치성'에 따라 변한다. 이는 인턴을 하다가 사원으로 발탁된 장그래가 '대학교 1학년을 바라보던 고3 학생이 어느덧 같은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렇게 커 보이던(늙어 보이던) 상사들이 어려보이'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3:19). 나중에 장그래는 '정식 입사 첫날 나와 같아 보이던 선임들은 이미 산골 연못의 산신령이 된지 오래다.'(3:108)고 판단을 변경한다. 사회적 위치성이 경험 장 안에서 인식 변경을 유도한 경우다. 주체의 사회적 위치성 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자기 인식, 사유의 깊이에서 오는 성찰성의 고도(高度)에 따라 자기인식과 판단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미생』에서 '대화'는 상대에 대한 호감과 신뢰, 동료 의식, 사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성찰성이 수반될 때, 자기 성장과 상생의 매개로 작용했다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 전통적 의미에서는 이것(가능하다고 상정되었지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지선至善의 가치를 지향하거나, 인격적 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수양'이다.

39)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확장적 자기성찰을 훈련하는 교육적 자료로서, 〈미생〉의 해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글쓰기'나 '토론' 수업 시간에 성찰적 대화를 제안하고,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화자와 청자의 성장에 대한 자기 기술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다.

www.kci.go.kr

3-2. 상생: 직장 내 인정구조와 상호 의존

『미생』이 그려내는 직장생활, 또는 노동 현장의 특징 중 하나는, 동료 간의 '인정구조'를 재현함으로써, 상생의 동력을 의미 있게 포착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도 동료 간 질투와 시기, 감정의 투사와 왜곡, 동료의 '능력/성과'를 사취하는 탐욕과 불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생』에는 동료(동기, 상사-부하) 사이에 정당한 인정구조가 존재함을 재현함으로써, 직장 생활과 노동 현장에서의 보람과 희망을 담보했다.

동료 간 조언과 협력을 하는 상황은 연재 초기에서부터 빈번하게 재현된다.[40] 이는 '실무적 차원'에서 필요한 동료 간 매너이자 사원끼리 지켜가야 할 태도에 대한 철학을 반영한다.

예컨대, 장그래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 정리 방식이 '자의적'이라고 비난받았을 때, 안영이는 이것이 결산이 아니라 기획단계에 쓰였다면 유효했을 거라고 말한다. 장그래는 이로부터 '상생'의 수를 읽게 된다(1:119). 이 과정은 직장 생활에서 인정구조가 갖는 힘을 시사한다. 신입사원 장백기가 상사의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하면서 신뢰를 보여준 것(5:194), 장그래의 집중력과 업무 태도를 인정한 것(5:195), 오상식이 장그래의 업무 처리에 대해 오해한 것을 알고, 이를 밝힌 것(1:241~260) 등은 인정구조가 갖는 희망의 동력을 보여준다.

열패감에 시달려 사직서를 내려했던 박대리가(2:19) 장그래에게 인정과 칭찬을 듣고 '날개'돋친 듯 긍정의 동력을 회복하는 장면(2:21)은 동료 간 상호 의존과 직장생활의 상생 구조를 반영한다. 이러한 힘은 짧은 인

40) 『미생』에는 신참 직원을 무조건 못본 척 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방관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최소한도의 '관계의 책임성'을 전제한 것 자체가 윤태호 작가의 '인간관'이다.

www.kci.go.kr

사말, 간단한 대화에도 드러나 있다.

ⓐ 장그래: “안녕하십니까?”
상 사: “아이구! 장그래씨, 좋은 아침.” (필자 주: 장그래가 쳐다보자) “응? 왜?”
장그래: “아… 아닙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상 사: “서로서로 부탁하는 거지 뭘. 나도 잘 부탁해요!” (3:15)

ⓑ 김대리: “나 같은 선임 없어~”
장그래: “네… 압니다.”
오과장: “자네 같은 신입도 드물어.” (3:52)

상하 간 수직 관계는 상호 인정을 교환하는 인사말을 통해 상호관계로 ‘전치’된다(ⓐ). 일방적 선언을 상호적 대화로 만드는 배려심은 인정구조를 형성하는 일상적 방식이다(ⓑ).[41] 오 과장은 장그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업무와 자신을 성찰하는 매개로 삼았을 뿐더러, 그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반드시 표현했다(3:176). 김 대리 또한 업무 용어와 약어를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장그래를 격려하며 조언해주었다(4:158).[42]

‘사실 인턴들과의 인연보다… 이분들(필자 주: 오 과장, 김 대리)과 헤어질지 모른다는 게 더 섭섭하다. 회사 경험은 일천하지만 알 수 있다. 나는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걸.’ (2:111)

직장 내 인정구조는 개인에게 자아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는 매개가 되었다. 그것은 회사생활을 가치화하는 동력이다. 이는 (김대리가 회사에 다니는 이유라고 말했었던) ‘승진’과 ‘월급’ 이상의

41) 장백기와 강대리는 껄끄러운 관계였으나, 상호 인정구조가 확인되자 다소 협력적으로 전환된다.
42) 위의 대화 사례 또한 학교와 일터(노동현장)에서 경험한 상호 인정의 대화 사례를 상기하여 공유하는 교육적 매개로 삼을 수 있다.

www.kci.go.kr

가치다.[43] 또한 타인에 대한 인정 구조는 팀 내 상생은 물론 자기 성장의 동력이 된다. 타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존중감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질투의 뿌리가 열등감이라면, 타인에 대한 인정의 뿌리는 자존감이다). 이는 실질적인 업무 협력, 상호 조언과 의존에 바탕을 둔 업무력 강화, 성과의 극대화라는 결과와는 다른, 감성적 시너지를 초래한다. 이것은 관계를 고양시키는 인문적 효과를 갖는다.[44]

3-3. 성장: [노동・현장・생애] 성찰과 지향

직장생활에서 '성찰'은 가능한가. 성찰하는 장그래의 시선을 통해 전체 서사를 이어온 『미생』은 성찰의 가능성과 가치, 공감동력으로서의 성찰성을 전면화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단지 허구라는 형식(웹툰/만화/드라마)을 통한 상상일 뿐,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허구와 현실의 간극은 좁혀질 수도 극복할 수도 없다. 또한 허구적 장르에 대한 공감은 유희적 차원으로 격리되어, 현실과는 구분되는 '판타지'의

43) 『미생』의 마지막 장면이 시사하듯, 김대리가 회사를 다닌 이유는 승진과 월급이 전부가 아니었기에, 〈미생〉 시즌 2에서, 김대리는 대기업을 나와 오차장과 장그래가 다니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다.
이를 성찰 교육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일상과 교육 현장에서도 '직장과 진로 선택의 기준'에 대해 글을 쓰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일차 선택, 토론 후에 달라진 변화를 관찰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성찰과 (무)의식적으로 관련된 읽기 자료와 시청각 자료(〈미생〉 포함)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사고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자기 선택과 사회적 조건의 맥락 형성을 분석한 이론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직장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4) 실제의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인정구조가 형성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작가적 기획이자 설정인데, 독자/시청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크게 감동받았음을 표현했다. 예컨대, 인터넷 블로그 '〈미생 2회〉 결정적 순간: 우리애라고 불렀다'(http://blog.naver.com/hinihin/220195413317) 등.

www.kci.go.kr

세계로 한정된다.

단연코 『미생』은 판타지가 아니다.[45] 『미생』이 보여준 성찰성이 현실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그려진 성찰성이 거대 담론을 통해 재현되거나 빼어난 영웅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소소한 일상생활, 실패 경력이 있고 부족한 점을 가진 평범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공유되며, 관찰되고 수정되는 면모로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장이라는 '장소'에서, 노동이라는 '환경'에서 과연 성찰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미생』이 그려낸 몇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자.

* 김 대리: "팀장님은 왜 다른 팀으로 안 가세요? 제일 끗발 없고… 눈에도 안 띄고, 부장, 차장 회의에서도 발언권 약하고, 그런데 왜 안 가세요?"
* 오 차장: "무서워서. 현장을 떠나는 게 무서워서. 좋은 팀 가서 빨리 승진하고… 차장 달고, 부장 달고, 임원 되는 게 우리 목표인가… 동식아. (중략) 퇴직한 임원들 어떻게 사는지 아니?" (8:36~37)

오상식은 김동식에게 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진이 업무상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호텔에서 '시간을 팔고 있'는 상황에 대해 들려주며 '저 모습이 내 최종적인 꿈인가 싶고… 저 모습조차 기적에 가까운 운이 아니라면 내 몫이 안 된다'(8:47)고 말한다. 승진과 월급을 좇는 삶의 끝은 임원으로 퇴직하여 '돈을 나이 주고 사는' 모습으로 관찰된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승진과 출세의 막다른 골목을 보여준다.[46]

---

45) 〈미생 스페셜〉 1부에서도 이 드라마를 판타지로 만들 수 없었기에, 장그래가 정규직이 되는 결말을 취하지 않고 원작을 따랐다는 인터뷰가 제시되었다.

46) 퇴직 임원에 관한 에피소드는 드라마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장그래의 독백처럼 임원 또한 '계약직'(9:91)일 뿐이지만, 이들이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www.kci.go.kr

오상식은 어린 시절 꿈을 환기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자신을 판단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했으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뜻(志)이 향(向)하는 것. "지향"' '어떤 것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 근거는 "지향"에 있다.' '지향하는 대로 살기란 매우 어렵고, 지향하는 바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회한과 깊은 고독에 빠진다. 지향은 곧 길이고 그 길을 걸을 뿐인 누군가는 길의 끝에서 거울을 마주하게 된다. 그 거울에서 소박하게 만족한 미소를 띤 누군가가 서 있을 수도, 괴물이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수도 있다.' (8:215~216에서 부분 발췌함)

주체적 지향성이 '성취'가 아니라 '포기'를 선택하는 데 있다는 성찰적 귀결은 역설적이다. 오상식의 결론이야말로 성취지향적 세계에서 '비'성취의 지향을 택하는, '자아실현의 역설'[47]을 성찰적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상식은 직장 생활을 하며 업무에만 충실하거나 사원과의 관계 형성에만 힘썼던 것이 아니다. 그에게 생애설계와 직장 생활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그 가운데에 수행된 성찰 또한 사적 영역(가정)과 공적 영역(직장)에서의 작용을 엄밀히 분리해낼 수 없다.

제 1수에서 청년 인턴 장그래의 실패에 대한 독백으로부터 시작한 『미생』은 제 131수에 이르러 경력사원 차장 오상식의 묵직한 숙고와 선택으로 '노동하는 현장'에서 주체적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선택'과 '포기'라는 '지향'을 통한 '결단'의 여정으로 재현되었다. 그 길은 만족과 성취, 행복이 아니라 깊은 고독과 불안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지향'을 추구하고 그 길을 성찰하는 것만이

47) 오상식의 독백으로 제기된 자아실현의 역설은 다음과 같다.: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도 맡겨진 일은 제대로 끝내려 했다. 승진을 위해 누구의 뒤에 서본 적 없다. 오히려 누군가의 뒷덜미를 잡아 쓰러뜨렸다. 회사의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기 매우 어려우니, 자아가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아의 실현이 된다.' (9:8)

www.kci.go.kr

‘사람으로 존재하려는 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미생』이 전하는 성찰적 희망의 메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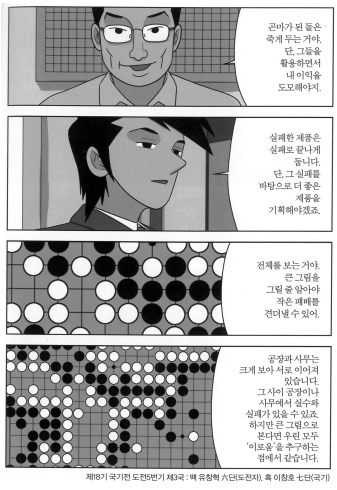
4. ‘만화’적 감성 표현과 성찰의 레토릭

성찰성은 ‘만화’라는 장르 안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인물의 대사, 독백, 나레이션 등 언어적 형식으로 수행되는 방식 이외에 만화라는 장르가 갖는 특성을 활용해 성찰성을 표현한 경우를 ‘성찰의 레토릭’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소설이나 드라마 등과 다른 만화적 표현과 수사가 강조된 사례를 선택함으로써, 감성과 성찰성의 매개에 주목할 것이다.[48]

48) 단, 이 글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성찰성’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된 성찰의 레토릭이 윤태호 작가 특유의 것인지, 만화 일반의 방식을 작가가 변형/응용한 것인지, 또는 일반화된 기법을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만화 캐릭터의 표정과 감정에 대한 연구를 ‘성찰성’과 연결시킨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의 감정 표현 및 기법에 대한 연구는 윤장원, 「만화캐릭터의 표정과 독자 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6; 신형호・김준교, 「3D 애니메이션에서 희로애락 표현방식의 차별성: 스타워즈와 스머프 영화 사례를 통해 비교」, 『일러스트레이션 포름』 33집,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 2012; 최영귀・염동철, 「애니메이션에서 선을 활용한 캐릭터의 감정표현 연구」, 『한국애니메이션연구』 8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2; 전광실, 「만화적 텍스트 차용에 따른 감성 표현의 커뮤니케이션 특징 분석」,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권 4호,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5를 참조. 이들은 감정 표정의 만화적 재현 기법 및 기술적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향후 만화에서의 감정 표현의 미학적 기법 및 작가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때, 윤태호 작가가 성취한 ‘성찰성’의 디자인적 구현은 이 분야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www.kci.go.kr

4-1. 혼성적 합성: '시공간/인물/대상/배경'의 혼성과 의미의 중첩



제18기 국기전 도전5번기 제3국 : 백 유창혁 八단(도전자), 흑 이창호 七단(국기)

첫째, 시공간, 인물, 대상, 배경을 혼성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독자의 공감각적 인지 활동을 견인한 경우다.

왼쪽의 컷(2:55)은 PT현장에서 장그래가 한석율에게 '실내화'를 팔기 위해, '현장'과 '사무실'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 배치된 컷이다. 바둑판을 배경으로 한 사범의 대사와 PT 현장의 장그래를 교차적으로 배치했는데, 바둑의 '수'를 '업무 전략'에 견주는 '유비적 대응' 구도를 취했다. 장그래의 과거에 대한 회고(기억, 연상)와 현장에서의 설득(현재)을 교차함으로써, 기억과 경험이 어떻게 장그래의 현실적 자산이 되었는가를 만화적 기법으로 구현했다(이때 실재했던 유창혁 VS 이창호의 대국 장면[2:255]을 활용해서 설득력을 높였다).

여기서 성찰성은 과거의 경험을 환기하는 장그래의 능력인 동시에, 이에 대한 재현을 통해 독자에게 환기되는 가치의 영역이라는 이중적 의미망을 확보한다.

4-2. 언어의 시각화: 직유적 표현의 이미지화

둘째, 언어로 기호화된 직유적 표현을 이미지화함으로써, 언어의 시각화를 구현한 경우다.

www.kci.go.kr

아래의 사례(1:33)는 '톱니'와 '개미'에 비유되는 노동자의 현실을 이미지로 구현한 경우다. '회사의 시스템'을 여러 사람(사원)이 모여 톱니바퀴(회사/업무 시스템)를 굴리는 이미지로 표현했다. 사원의 무표정을 통해서는 '사물화된 인간'이라는 의미를 체현했다. 또한, '일개미'로 칭해지는 노동자(사원)를 개미 몸에 사람 얼굴(半人半蟻)의 가상적 생명체로 이미지화했고, 넥타이를 맨 형상을 통해 남자 사원임을 표시했다. 피로에 지친 표정은 피로사회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밖에 업무 스타일을 농부와 헌터에 비유하면서, 농부이면서 헌터이고 싶은 박대리의 스스로에 대한 욕망을 표현한 사례를 들 수 있다(8-163). 절반은 농부와 유사한 현실을, 절반은 헌터가 되고 싶다는 노동자의 욕망을 '한 몸'으로 체현해 이미지화했다. 욕망과 현실은 농부와 헌터의 거리만큼이나 확실하게 공존 불가능한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박대리 자신의 페이소스를 담아냈다. 동시에, 박대리를 통해 노동현실에서의 자신을 반추하는 독자의 페이소스를 환기하고 있다.

4-3. 패러디: 이미지와 감각의 차용

셋째, 명화를 패러디하여 이미지와 감각을 차용한 경우다. 예컨대, 다음 컷(8:179)은 밀레(Jean-François Millett 1814~1875)의 〈이삭 줍는 여인들 (Des glaneuses 1857)〉을 패러디한 '담배 줍는 사원들'이다. 원화가 한 톨의 이삭조차 당국의 허가를 받고 주워야 했던 곤고한 농민들의 사

www.kci.go.kr



실적 풍경을 담은 그림이라면,[49] 『미생』에서는 노동의 피로를 풀기 위한 해소의 '찌꺼기'조차 스스로 처리하는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피로도를 패러디했다. 패러디를 통한 사유의 확대와 감성적 울림의 증폭을 이끌어 낸 경우다.

4-4. 중의적 암시・상징・투사

넷째, 중의적 암시와 상징의 방법으로 배경 이미지를 활용해 주제를 전달하고, 때로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 경험을 텍스트에 투사하도록 유도한 경우다.

아래의 사례(1:183)는 회사 근처의 골목 풍경을 제시한 경우다. 이 간판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화를 참기 위해 먹어야 하는' 현실을 풍자한다. 그밖에 '개념집'(3:88), 'Lose'(3:89)라는 간판도 현실에는 없지만, 작중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 설정한 배경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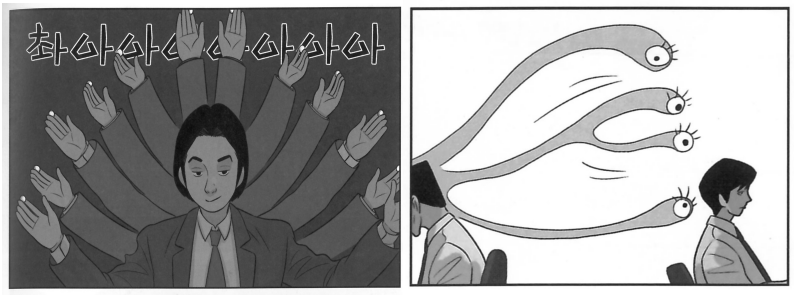
4-5. 정보 압축과 감각 전환

다섯째, 정보 압축과 감각 전환의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이미지화

49) [작품해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Des glaneuses), 1857(매거진 아트: http://jsksoft.tistory.com/11594)를 참조. 이 글에 따르면, 밀레는 "나는 농부들이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고 했다고 한다.

www.kci.go.kr

한 경우다.



위의 왼쪽 그림은 장그래에게 파트너 제안을 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또는 주도권을 갖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감을 피력하는 한석율의 과시적 성격을 팔이 여러 개 달린 모습으로 이미지화한 것이다(1:161). 서사에서는 인물의 성격묘사를 위해 대사, 표정, 행동, 사건에 대응하는 태도 등을 묘사해야 하지만, 만화에서 자기과시를 현란하게 드러내는 대사에 이어 '여러 개의 팔'을 등 뒤에 '촤아아아' 공작새처럼 펼치는 이미지를 통해 간략하게 표현했다.

위의 오른쪽은 좋은 스펙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그래의 능력과 자질을 탐하고 때로는 질투하는 장백기의 태도를 표현한 장면이다(3:90).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도, 뒤통수에 여러 개의 눈을 '가동시켜' 장그래를 탐색하는 모습을 만화적으로 표현했다. 이상의 사례는 정보의 압축과 시각 이미지를 통해 성격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감각 전환에 해당한다.

4-6. 내면의 이미지화

여섯째,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를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방식이다. 예

www.kci.go.kr



컨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정동적 상태를 일그러진 표정, 흔들리는 모습(1:35 왼쪽 그림), 시신처럼 주저앉은 육체(1:36)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언어적으로 논증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영혼'이 만화적 이미지로 표현되었을 때, 그리고 주체의 몸과 정체성 자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재현되었을 때, 이를 읽는 독자는 '영혼을 가진 존재' 또는 그 삶에 대한 성찰적 지각에 도달한다.

한편, 상사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 무산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책임이라고 말해야 하는 안영이의 내면을 표현한 컷에서는 분노, 수치, 혐오, 자책, 굴욕, 슬픔의 감정이 잘 표현되었다(7:243~245).[50]

4-7. 대사와 독백의 병치

일곱째, 만화라는 장르를 활용해 대사와 독백을 병치함으로써, 대사를 통해서는 독자가 스토리를 따라가도록 하고, 독백을 통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물의 판단과 감각을 이해하도록 하는 이중의 인지 작용을 겨냥한 사례다(독백과 대사가 마치 음악의 화성처럼 중첩되어 들리면서 조화를 이룬다).

50) 안영이의 상처받은 내면에 대해서는 이윤영, 「윤태호 만화 연구: 『YAHOO』, 『이끼』, 『미생』의 분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09-110쪽에서 내면 묘사와 은유적 표현 기법으로 논의된 바 있다.

www.kci.go.kr



왼쪽의 사례(1:32)는 회식자리에서 업무를 평가하고 격려하는 부장과 그에 대해 이중적 대응을 하는 사원의 태도를 관찰하며, '일하는 삶'에 대한 느낌과 인상을 독백으로 처리한 장면이다.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배반'이 '지고 피는' 것으로 표현했다. 독자는 '일하는 삶'의 모순과 곤고함을 경험하면서 복잡하게 중첩된 감정의 결을 경험하게 된다(동일시, 페이소스, 혐오, 환멸 등). 만화라는 장르 안에서 시차를 둔 장면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대사와 독백을 병치함으로써 성찰성을 텍스트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미생』의 처음부터 제시되었다는 것은 『미생』에서 '성찰성'이 갖는 중요도와 비중을 시사한다.

5. 결론

장그래의 직장생활 성장기를 다룬 『미생』이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나 직장 생활을 다룬 여타의 만화, 드라마와 구분되는 가장 확실한 차이는 '성찰성'이다. 자기계발서가 직장생활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적응과 순응, 입신출세의 동의어인 승진 전략의 지침서로서, 이른 바 '성공 전략'을 다루었다면, 『미생』은 자기계발서의 지침을 내면화한 동료와 공생해야 하는 주체가 어떻게 자기를 확립하고 동료 관계를 형성하며, 업무와 삶을 감당하는가, 라는 고민을 다룬 성찰적 텍스트다. 그런 이유로 『미

www.kci.go.kr

생』은 독자로 하여금 적응이 아닌 가치를, 성공이 아닌 의미를, 목적이 아닌 의도를, 일이 아닌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유의 동력을 발휘하게 한다.

신입사원은 '덤'까지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3:225)을 가지고 직장생활에 임하는 장그래의 태도는 그가 바둑에서 익혔던 방식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비춘다. 바둑에서는 능력 많은 고수가 하수와 대국할 때, 흑돌을 남기는 것이 관례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족한 자가 '잉여 노동'까지 감내해야 한다. 이중의 부담을 지는 것이다. 배려 없는 관계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 착취를 수반한다.

신입사원 장그래의 직장생활 분투기라 할 『미생』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성찰이 가능한가, 노동현장에서 동료간 성찰적 대화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상적으로 실천 가능한 희망의 정념을 재현했다. 『미생』의 성찰성은 스토리 전개나 인물 형상화, 대사와 독백의 선별에 관여된 '서사적' 차원을 이미지로 재현하는 만화적 테크닉으로 구현되었다.

『미생』에서 장그래를 중심으로 관찰되고 사유된 일상, 노동, 생애는 성찰적 독백의 형식으로 전면화되었다. 이는 서민의 삶, 노동현장, 직장생활, 일상에서의 성찰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생』은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업무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며 나이 들어가는 직장인의 생활과 생애를 성찰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신념과 가치를 발견하고 교환하며 수정하고 실천하는 성찰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 논문에 인용된 인물의 독백과 대화, 표정과 행동 등은 모두 성찰 연습의 실제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예컨대, 글쓰기와 토론, 문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시간에 학습자로 하여금 각자의 생각과 가치, 신념, 취향을 담은 내용으로 각 대사와 장면을 대체하게 함으로써, 자기발견과 성찰성을 연습하게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의 경우 기술적 도구로

www.kci.go.kr

서의 의사소통 이외에, 어떻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성찰성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글쓰기'와 '토론' 수업에서는 진로 선택, 직장 선택의 기준, 일터와 사회에서 경험한 인정 구조에 대한 자기 기술지를 작성하게 하고, 토론을 통해 입장을 수정/심화하게 한 뒤, 성찰적 글쓰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 감각에 대한 관찰, 대화를 통한 식견의 확장과 심화, 성찰적 자기 정리의 과정을 경험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미생〉이 대중의 화제가 된 이후, '장그래법(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제안되었다. 재론할 점이 많다고 평가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른바 문화콘텐츠의 힘이 현실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매개가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다. 가속화되는 스펙주의, 비고용률의 증가, 실업율과 조기 퇴직률의 강화, 경쟁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피로도를 호소하면서 문제적 한국을 '헬조선'으로 명명하는 혐오와 냉소, 자포의 시선이 팽배해가는 현대사회에 〈미생〉이 보여준 성찰성을 개인과 사회의 성찰 훈련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 보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윤태호,『미생』1~9권, 위즈덤하우스, 2012~2013.

_____,『이끼』1~4권, 재미주의, 2014.

_____,『파인』1~4권, 재미주의, 2014.

윤태호・에이코믹스,『미생 메이킹 스토리』, 위즈덤하우스, 2015.

tvN 드라마 〈미생〉, 김원석 연출, 정윤정 극본, 2014.10.17~12.20.

히로카네 켄시(弘兼憲史),『시마 과장』1~17권, 서울문화사, 1996~2001.

2. 논문과 단행본

강영안,『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1-333쪽.

고동균,「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의 편집 변환 연구: 칸의 구조 변환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권경민,「웹코믹스의 메타표현에 관한 연구」,『만화애니메이션연구』16집,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09, 211-221쪽.

김명신,「TV드라마 〈미생〉의 공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미라,「웹툰 미생(未生)의 성공요인 분석: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바둑학연구』11권 2호, 한국바둑학회, 2014, 93-105쪽.

김수환,「웹툰 〈미생〉이 말하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시대의 노동, 공동체 그리고 성장」,『안과밖』35호, 영미문학연구회, 2013, 201-231쪽.

김은영,「미디어 콘텐츠의 재매개와 디지털 서사의 변주:『미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나은희,「드라마 〈미생〉의 서사, 신화 및 의미구조: 〈미생〉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상선,「tvN 〈미생〉 속 감정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박찬주,「청년세대의 노동현실에 대한 의미생산과 해석적 위치: 드라마 〈미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방희경・유수미,「한국언론과 세대론 전쟁」,『한국언론학보』59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15, 37-61쪽.

서성은,「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서 〈미생〉의 가능성과 한계」,『어문학』128,

www.kci.go.kr

한국어문학회, 2015, 277-308쪽.
신형호・김준교, 「3D 애니메이션에서 희로애락 표현방식의 차별성: 스타워즈와 스머프 영화 사례를 통해 비교」, 『일러스트레이션 포름』 33집,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 2012, 17-26쪽.
안젤라 리 스미스・노재민, 「고급 한국어 교과과정에서의 사회어문화적 능력 함양 방안: 드라마 〈미생〉 활용」, 『언어와문화』 12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6, 113-142쪽.
안진아, 「드라마 〈미생〉을 통해 본 미생(未生)이 아닌 '미생'(美生)으로 세상보기」, 『이제 여기 그 너머』 3호, 이제 여기 그 너머, 2015, 172-176쪽.
양승국, 「드라마에서 언어와 이미지의 구조와 작동원리: 텔레비전드라마 「미생」(2014)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3권 2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6, 13-37쪽.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중급, 연세대출판부, 2011.
윤장원, 「만화캐릭터의 표정과 독자 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4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6, 227-231쪽.
이병준・이경아, 「신입사원의 문화인지 발달에 관한 문화기호학적 연구 -드라마 〈미생〉의 서사를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43, 한국기호학회, 2015, 192-226쪽.
이승연,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와 청년문제에 관한 연구: 웹툰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 〈미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윤영, 「윤태호 만화 연구: 『YAHOO』, 『이끼』, 『미생』의 분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전광실, 「만화적 텍스트 차용에 따른 감성 표현의 커뮤니케이션 특징 분석」,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권 4호,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5, 173-182쪽.
정일형, 「〈미생〉을 통해 본 비주얼 구성요소의 공간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19권 1호,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5, 281-307쪽.
최기숙, 「혜환(惠寰)・무명자(無名子)・항해(沆瀣)의 비평적 글쓰기를 통해 본 '인(人)-문(文)'의 경계와 글쓰기의 형이상학」, 『동방학지』 15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177-219쪽
_____, 「신자유주의와 마음의 고고학-향수를 넘어서 성찰로, 잃어버린 마음/행동/태도에 대한 책임의 인문학」, 『동방학지』 167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245-284쪽.
_____, 「고통의 감수성과 희망의 윤리: 한국 현대문화와 고전/역사의 유비적 대응과

www.kci.go.kr

성찰적 탐색」, 『민족문학사연구』 59호, 민족문학사학회, 2015, 497-527쪽.
_____, 「계몽의 이면, 무시와 혐오의 감성 정치: 『한성신보』(1895-1904) 잡보란을 통해 본 '조선'의 표상화 맥락과 감정 수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5-45쪽.
_____, 「지속 가능한 '감성-성찰' 자원 구축을 위한 한국 '고전/전통' 자원의 재맥락화」, 『동방학지』 17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25-55쪽.
최영귀・염동철, 「애니메이션에서 선을 활용한 캐릭터의 감정표현 연구」, 『한국애니메이션연구』 8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2, 101-118쪽.
한금윤,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연구: 언론 보도와 대학생의 '자기서사' 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8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5, 7-29쪽.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한혜영・김명숙・오경수, 「TV 매체를 통한 일상학습의 의미탐색: 드라마 〈미생〉 시청자들의 댓글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한국성인교육학회, 2015, 105-130쪽.

앤드류 포터,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노시내 옮김, 마티, 2016.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노동하는 영혼: 소외에서 자율로』,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2.
_____,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정유리 옮김, 난장, 2013.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페터 뷔르거, 「文藝學에서의 반영 개념의 역할」, G. 루카치 외, 『리얼리즘 美學의 기초이론』, 이춘길 편역, 한길사, 1985, 145-178쪽.
리차드 세넷,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조용 옮김, 문예출판사, 2002.
_____, 『투게더』, 김병화 옮김, 현암사, 2013.

www.kci.go.kr

Abstract

Everyday life · Labor · Lifetime and Power of Reflection, Sympathetic Power of Communication - Question and Hope that are cast from *Misaeng*

Choe, Key-Sook(Yonsei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 how it is possible to reflect and realize one's value of life in daily life, field of labor and the whole lifetime through analyzing Misaeng which is created by Yun Tae-ho, a series of comic books that were originated from Webtoons and released as TV drama. Every episode of Miseing is represented characters's reflective monologue and dialogue, and cognitive senses. The main character, Jang Geu-rae's monologue realizes the philosophy of observation and gaze toward the world and society,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and himself. The most influential reflective devices are represented as characters' observation and experience in the everyday life and working field. They get some inspiration from their life fieldS and solutions about their own problems. They decipher the affective signs from their lives and repositioned them into their 'sustainable reflective assets'. Jang Geu-rae constantly communicates and acts with his colleagues with responsibility, moral sense, and authentic attitude. These attitude leads inter-dependence between colleagues and makes it possible to lead their symbiotic relationships. The detailed ways of representing reflectivity of Misaeng are not only general rhetorics of narrative as like dialogue, monologue and narration, but also mixed composition between image and dialogue, visualization of speech, parody and overlapping of meaning, symbolization, etc.

(Key Words: *Misaeng*, comics, Yun Tae-ho, television drama, reflectivity, Neo-liberalism, dialogue, monologue, symbiosis, responsibility, change of sense)

논문투고일 : 2016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1월 2일
수정완료일 : 2016년 11월 9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5일

www.kci.go.kr